

전출 가구원의 가족 유대

원가구에 대한 방문과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정 기 원*

이 연구에서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형태와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원가구의 구성, 전출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전출의 특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실증분석에는 1983년에 실시된 전국 인구이동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자료를 이용한 통계 분석에는 종속 변수의 측정 방법과 분석 대상의 한정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의 기법이 차례로 사용되었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① 전출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가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로 나타날 때, 두 형태의 교류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상호 작용적인 관계가 함께 나타난다; ②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와 재정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출 가구원의 나이, 성, 교육 수준, 경제 활동 상태, 그리고 전출 가구원의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특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③ 분석의 대상자를 원가구를 방문한 전출 가구원으로만 한정하여, 원가구에 대한 방문의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을 때,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주와의 관계, 교육 수준, 전출 기간, 그리고 원가구와 같은 시·도에서의 거주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출 가구원의 농촌 거주 여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④ 전출 기간이 길어 질수록 원가구를 방문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원가구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로만 분석의 대상을 한정할 때 방문의 회수는 오히려 줄어든다. 이 연구가 갖는 학문적인 의의는 전출 가구원의 가족 유대에 관한 처음의 실증 분석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적 의미는 실증 분석의 결과가 노인 단독가구의 부양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에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I. 서 론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속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인구 이동의 특성은 '젊은 연령층에 의한 이촌향도성 이동'으로 불리워질 수가 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가용 토지 면적에 대비한 인구수의 과다로 인한 물리적 및 계량적 문제, 수도권의 비대로 인한 다른 지역의 상대적 빈곤화, 그리고 하부 구조의 미비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권태준, 1983)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촌향도로 특징지

* 本院 責任研究員

어지는 인구 이동의 흐름과 젊은 연령층에 의한 이동 인구의 선별성은 농촌 인구의 노령화를 만들게 되고, 이는 다시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그리고 도시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의 증가를 불러왔다.

수도권 인구의 과집중이 사회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제기되는 인구 분산 정책 수립의 필요성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인구 이동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 접근에 치중되어 왔다. 인구 이동의 흐름을 지역별 또는 도농간으로 나누어서 흐름의 양을 나타내는 게 많았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흐름을 결정짓는 요인들과 인구 이동의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구 이동 또는 거주지 이동에 관한 다른 나라들에서의 연구는 그 관심의 대상이 총체적인 인구의 흐름을 밝히는 거시적 접근에서 개별적인 거주지 이동의 행태를 살피는 미시적 접근으로 옮겨가고 있다(Fischer, 1985). 이는 총체적 자료의 이용만으로는 거주지 이동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개인의 사회적 행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없었고, 따라서 개인의 거주지 이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시적 접근에서의 인구 이동은 개인이 겪게 되는 단순한 거주지 이동의 경험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권태환·김두섭, 1990 : 164). 거주지를 옮겨가는 개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DaVanzo, 1981 : 92)에 따른 것이지만, 거주지 이동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다. 지역적 성격이 다른 곳으로의 이동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웃과의 관계가 사라짐에 따라 생겨나는 소외감이나 고독감과 같은 심리적 고통도 겪게 된다. 특히 미혼의 이주자는 심리적 고통을 더욱 심

하게 겪게 되는데, 1983년의 전국 인구 이동 조사의 결과에서는 미혼의 이주자 중 35퍼센트가 거주지를 옮긴 후 고독감과 소외감의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oon, 1986 : 163)

개인의 거주지 이동이 가구원의 일부에게만 일어날 때 그들이 겪게되는 어려움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거주자에게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원가구(原家口)에게도 고통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젊은 연령층의 가구원이 이주함으로써 원가구의 구성 형태는 노인 가구로 남게 되고, 이들이 부딪히는 노동력의 부족은 빈곤 가구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의 주된 관점은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형태와 정도에 주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①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②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형태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③ 그러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은 어떠한가?

등의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원가족과의 유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는 주로 구성원 각자가 가족 기능의 틀 속에서 갖게 되는 역할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데, 내집단적 경향이 매우 짙게 나타난다(Back, 1981 : 334).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에도 이들 사이의 유대는 꾸준히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유대 관계는 주로 물질적 교류나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물질적 교류는 가족 구성원

들 사이에 일어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교류는 구성원들 사이의 방문이나 전화 통화, 그리고 편지의 왕래 등으로 나타난다. 떨어져 사는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 생겨나는 심리적 교류도 가족 유대의 중요한 한 형태이고, 이러한 심리적 교류가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심리적 교류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의 정도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가족 유대가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의 형태로 나타날 때, 가족 유대의 두가지 형태가 만드는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가지 입장이 있어 왔다. 하나는 두 형태의 교류가 서로 상호 작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혼한 아버지와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전처와 함께 사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얻어진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 보다 자녀들을 더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결론이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Furstenberg et al., 1983; Grief, 1985).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의 상호 작용적 관계는 가족 유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예를 들면, 이 연구에 있어서의 전출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이나 원가구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에 같은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상호 작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류가 물질적 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이는 사회적 교류가 많을수록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각 구성원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쉽게 드러나며, 이에 따른 물질적 교류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Chambers, 1979). 또는 사회적

교류가 자주 일어날수록 구성원들 사이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쉽게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실제의 재정 지원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의 정도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셀처 외(Seltzer et al., 1989)는 두 형태의 교류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경제학이나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에서 보이는 대체 효용의 감소에 관한 전제를 바탕으로 설명되는데, 하나의 교류 형태가 다른 교류 형태의 효용 또는 가치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이 떨어져 사는 경우엔 하나의 교류 형태에 대한 대체로 다른 교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을 찾아 뵙지 못하는 대신에 선물이나 돈을 부쳐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III.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결정 요인

1. 원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동기와 가치는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틀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한 가족 구성원의 생계도 결국 가족 구조 안에서 보장되기 때문에(Harbrison, 1981: 226), 원가구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구성의 형태는 전출 가구원이 그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족 유대를 맺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원가구의 경제적 궁핍에 대해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되고, 비록 떨어져 사는 전출 가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가가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전출 가구원의 경제적 여건이 같다고 했을 때, 원가구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록 전출 가구원의 재정적 지원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가구의 경제 상태가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 대해 보여주는 사회적 교류의 크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사회적 교류는 오히려 원가구의 가족 구성 형태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전통 사상에 따른 경로의 가치관이 아직까지 우리의 가족생활에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경제 활동 구성원이 없는 원가구에 대해선 전출 가구원의 사회적 교류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감이 전출 가구원에 있는 경우엔 재정적 지원도 많게 될 것이다.

2. 전출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

개인의 행태는 그가 지닌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미시적 접근은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회적 교류나 물질적 교류도 그의 사회적 행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지닌 여러 특성들에 의해서 교류의 형태와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개인이 지니는 특성 중에서 나이와 성은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이 되고, 이러한 조건은 개인 행동이나 집단 행동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Finch, 1986: 19). 젊은 연령층의 집단은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귀속감이 비교적 낮으며, 또한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Shaw, 1975: 18), 젊은 연령층의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 대해서 느끼는 가족 유대는 나이가 많은 전출 가구원의 가족 유대감보다 낮을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적을수록 원가구에 대한 사회적 교류와 물질적

교류도 적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 대해 갖는 가족 유대감은 남자 가구원의 경우가 여자 가구원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가부장적 가족 가치관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가족 체계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출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혼인 상태,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 활동 상태도 그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형태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출 가구원이 결혼을 한 경우, 그는 현재의 거주지에서 구성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현가구를 현재의 거주지에서 구성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한다면, 결혼을 통해 현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는 현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현가구에서의 기능 및 역할과 원가구에서의 그것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면 거주지 이동은 역할 단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출 가구원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 상태가 원가구와의 가족 유대 형태와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교류와 물질적 교류의 실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에의 불참은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를 줄이게 된다. 그러나 전출 가구원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은 산업 사회가 갖는 새로운 가족 가치관의 적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전출 가구원이 보이는 가족 유대보다도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3. 전출의 특성

누적 관성의 원리는 '자연에서 한 상태에 그대로 있고자 하는 확율은 그 상태에서 이때까지 있어 왔던 기간의 단순 함수로 증가한다'(McGinnis, 1968:716)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누적 관성의 원리가 전출 가구원의 현 거주지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귀속감에 작용하기 때문에, 전출 가구원의 전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이 지나는 공간적 특성도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에 영향을 미친다. 전출 가구원의 거주지가 원가구의 거주지와 가까울수록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사회적 교류와 물질적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거주지 이동의 원인도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거주지 이동의 의사 결정은 거주지 이동이 일어나고 난 후의 가족 기능과 역할에도 작용하게 된다. 경제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발생한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는 전출 가구원에게 주어지는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한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물질적 교류는 다른 이유의 전출 가구원의 교류보다도 더욱 강할 것으로 기대되나, 거주지 이동의 이유가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실증적 분석은 1983년에 국제연합 인구활동기금

(UNFPA)의 재정적인 뒷받침 아래 한국인구보건연구원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인구이동 조사(Korean National Migration Survey-1983)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전국 인구이동 조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540개의 표본조사구가 4개의 층(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시부, 부산 및 대구 직할시, 기타 시부, 그리고 군부)으로 나뉘어져 461개의 조사구로 재추출되고, 재추출된 조사구에서 층에 따라 달리 적용된 추출율에 의하여 9,229 가구가 표본으로 뽑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조사 대상으로 뽑혀진 가구에 대하여 상주 가구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배경, 비상주 가구원 및 전출 가구원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배경, 가구의 토지 소유 및 활용 상태, 그리고 거주 상황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구 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8,897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되어 96.4퍼센트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조사의 표본 및 설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를 참조).

이 연구에서의 실증 분석은 조사가 완료된 8,897가구에서 나타난 전출 가구원 2,451명을 대상으로하여 이루어 졌다. 가구 조사 설문지의 제3장 '전출 가구원'의 항목에 기록된 전출 가구원 개인이 분석 단위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보는 가구조사의 조사대상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어진 것이다.

전출 가구원으로 밝혀진 2,451명 중에서,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와 조사 당시에 학생이거나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전출기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와 원가구주의 배우자가 전출 가구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제외시켰다.

전출 가구원들 중에서 나이가 13세 이하이

거나 직업이 학생인 가구원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그들의 거주지 이동은 그들 스스로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가주주의 배우자가 전출 가구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일반적 가족 유대의 관계와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출 가구원의 경우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시키고 마지막으로 남게된 1,624명만이 실증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졌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 변수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는 경제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로 나뉘어서 측정되었다. 사회적 교류를 통한 가족 유대는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를 방문한 회수로 측정되었고, 물질적 교류는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게 보낸 재정 또는 현물 지원의 금액으로 측정되었다.

방문 회수는 설문지에서의 '이분은 이곳을 떠난 후 지난 12개월 동안에 귀하의 댁을 몇번 방문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출 가구원의 전출 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엔, 전출기간에 역비례한 가중치를 나타낸 방문회수에 곱해 1년간의 방문 회수로 환산해 주었다. 전출 가구원의 조사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를 방문한 평균 회수는 9.6회(표준 편차는 15.64)로 나타났고, 전체 전출 가구원 중의 19.0퍼센트는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를 전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물질적 교류로 나타나는 가족 유대는 설문지 제5항 '상주 가구원이 타 지역 거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물품'의 항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지난 12개월 동안에 받

으신 현금 액수는 모두 얼마입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얻어진 금액과 '(지난 12개월 동안에) 받으신 물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물품들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모두 얼마가 되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얻어진 금액을 합하여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값으로 삼았다. 전출 기간이 1년이 안된 전출 가구원에 대해선 방문 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출 기간에 역비례한 가중치를 곱해 1년 동안의 재정 지원으로 환산해 주었다. 그리고 전출 가구원의 자료에서는 나타나면서 제5장의 자료에서는 빠져 있는 전출 가구원은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0'의 값이 주어 졌다. 분석의 대상이 된 전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에게 보낸 재정 지원의 평균 금액은 89,800원(표준 편차는 484,560)으로 나타났다.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의 금액을 범주화시켜서 <표-1>에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전출 가구원의 74.7퍼센트는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를 전혀 방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 안되게 방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포상의 집중 현상은 재정 지원의 경우엔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출 가구원의 87.6퍼센트는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에게 재정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에 있어서의 실증 분석은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 유대는 전출 가구원 개인과 원가구가 갖는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의 함수로 분석되어지는데, 분석에 쓰여진 변수들의 내용을 <표-2>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도 표

Table 1. Distribution of Visits and Payments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 금액의 분포 상태

Frequency of Visits	N	%	Amount of Financial Support	N	%
No visit	309	19.0	No support	1,423	87.6
Less than once a month	904	55.7	<₩100,000	53	3.3
Once a month	181	11.1	₩100,000~₩199,999	19	1.2
Twice a month	84	5.2	₩200,000~₩399,999	39	2.4
Three times a month	60	3.7	₩400,000~₩599,999	22	1.4
Once a week or more often	86	5.3	₩600,000~₩999,999	21	1.3
			₩1,000,000+	47	2.9
Total	1,624	100.0	Total	1,624	100.0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Variables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Variable	Mean	SD
Family-ties		
Number of visits to family of origin during the last one year	9.57	15.64
Total amount of payments to family of origin during the last one year(in ₩1,000)	89.80	484.56
Structures of the household of origin		
Whether the member aged 60 years and over is living(1=yes)	.34	.48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out-migrant		
Age	25.46	9.27
Sex(1= male ; 0=female)	.46	.50
Relation to household head in family of origin (1=unmarried child ; 0 otherwise)	.42	.49
Education (1=more than middle school ; 0 otherwise)	.49	.50
Economical activity(1=economically active ; 0 otherwise)	.62	.49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Number of months in out-migration	20.40	16.49
Reason of out-migration (1=economic reason ; 0 otherwise)	.58	.49
Whether the out-migrant lives in the same province as the family of origin does(1=yes)	.21	.41
Whether the out-migrant lives in rural area(1=yes)	.26	.44

2에 함께 실었다.

원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의 구성형태가 쓰여졌는데, 노인 가구와 비노인 가구로 이분화시켜서 측정하였다. 노인 가구는 원가구의 구성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로 정의되었는데(이가옥 외, 1989 : 11), 이러한 원가구에 대해선

'1'의 값이 주어졌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이 없는 원가구에 대해선 비노인 가구로 측정되어 '0'의 값이 주어졌다.

전출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에는 전출 가구원의 나이, 성, 원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활동의 여부를 포

함시켰다. 전출 가구원의 나이는 조사 시점에서
의 만 나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성은 남자
전출 가구원에게는 '1'을, 그리고 여자에게는
'0'의 값을 주었다.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주에 대한 관계는 미혼
자녀인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로 이분
화하였고, 교육 수준은 전출 당시의 교육 정도를
바탕으로 하여 중학교 졸업 이상(1)과 그 미만
(0)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제 활동 여부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전출 가구원(1)과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전출 가구원(0)으로 이분화시
켜 측정하였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전출 가
구원에는 피고용인, 자영업주, 고용주,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인 경우가 해당된다.

전출의 특성에는 전출 기간, 전출의 이유,
거주 지역 등을 포함시켰다. 전출 기간은 가구
원이 원가구를 떠난 때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기간을 개월을 단위로 하여 측정하였다. 조사에서
전출 가구원의 자료는 '지난 5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사시던 가구원 중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상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전출 기간의 가능 범위는 1개월부터 60
개월까지가 된다. 전출 가구원이 이주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1)과 그 외의 요인(0)으로
이분화시켜 측정하였다. 경제적인 요인에는 ; ①
일자리를 찾아서, ② 취업이 되어서, ③ 전근되
어서, ④ 돈을 벌기 위해, ⑤ 직업을 바꾸기 위
해서, ⑥ 근무지와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⑦ 기타의 경제적인 이유 등이 해당된다.

전출 가구원이 살고 있는 현거주지의 특성에는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와 같은 시·도에 살고
있는지(1)와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지(0)로
이분화시킨 변수와, 그리고 거주 지역이 농촌(1)
인지 아니면 도시(0)인지로 측정된 변수가 쓰여
졌다.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거주 지역이 군부인
경우를 농촌으로, 그리고 시부인 경우를 도시로

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의 통계 분석에서 종속 변수로 쓰여
지는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의 금액에 대한 값
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전체 전출 가구원 1,
624명 중에서 309명(19.0%)이 원가구 방문 회
수의 값에서 '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의 경우엔 자료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져
전출 가구원의 87.6퍼센트(1,423명)가 '0'의 값
을 갖는다(표-1 참조). 이처럼 종속 변수의 값
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독립 변
수들이 종속 변수에 대해 선형 영향과 비선형의
영향을 함께 나타내게 되고(Seltzer et al., 1988
: 1021), 이러한 자료를 선형의 영향만을 가정
하는 선형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겨난다(선형 회귀 모형이 지니
는 제한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Aldrich
and Nelson, 1984 : 10~12를 참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비선형 영향과 선형 영향을 나
누어서 분석하였다. 비선형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기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이 사용되었으며, 선형 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의 기법은 선형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 쓰여졌다.

먼저 원가구의 특성, 전출 가구원의 사회경제
적 특성, 그리고 전출의 특성 등이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에 미치는 비선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들의 값을 2
분화하였다. 전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를 방문한 경우엔 '1'의 값을, 전혀 방
문하지 않은 경우엔 '0'의 값을 주었고, 그리고
원가구에게 재정 지원을 한 경우엔 '1'로, 재정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엔 '0'으로 하였다.

이렇게 2분화되어진 종속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넣어서 통계분석을 함으로써, 독립변수들이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를 방문하게 되는 확률과 원가구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이 선형 회귀 모형과 다른 점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있어서의 종속 변수는 2분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형 회귀 분석, 특히 중다 회귀 분석은 분석의 틀에 들어간 여러 변수들이 함께 분석되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나름대로의 강한 설득력, 대부분의 컴퓨터용 통계 패키지에서 들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용의 용이함, 그리고 측정된 회귀 계수에 대한 해석의 간단함 등을 이유로 다변인 분석이 요구되어지는 사회과학 분야의 통계 분석에 널리 쓰여져 왔다 (Aldrich and Nelson, 1984 : 9). 하지만 2분화된 종속 변수를 선형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이분산성의 문제와 기대 확률의 값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커지는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Kmenta, 1986 : 549).

분석의 틀에 들어 가는 p 개의 독립 변수를 $X = (x_1, x_2, x_3, \dots, x_p)$ 로 나타내고, 주어진 X 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사상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부 확률은 $p(Y=1/X) = \pi(x)$ 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럴 경우 다중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있어서의 로지트는

$$g(x) = \ln\{\pi(X)/[1-\pi(X)]\} \\ = \beta_0 + \beta_1x_1 + \beta_2x_2 + \dots + \beta_px_p$$

의 형태로 나타나고(Hosmer and Lemeshow, 1989 : 25), 여기에서

$$\pi(X) = e^g(X)/[1+e^g(X)]$$

가 된다. 이때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서 얻어지는 로지스틱 회귀 계수의 값은 원가구를 방문한 전출 가구원의

방문하지 않은 전출 가구원에 대한,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한 전출 가구원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전출 가구원에 대한 대수 비율에 대응하는 값이 된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 계수의 값이 지니는 부호는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를 방문하게 될 확률과 재정 지원을 하게 될 확률에 미치는 독립 변수들의 비선형 영향의 방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절대값은 영향의 크기가 된다.

통계 분석의 두번째 단계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선형의 영향만을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의 대상이 된 전출 가구원의 수는 각각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1,315명과 원가구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 201명이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원가구의 구성, 전출 가구원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전출의 특성이 전출 가구원의 원가족에 대한 가족 유대에 미치는 선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 회귀 분석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 금액을 종속 변수로 삼았으며, 독립 변수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쓰여진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최소화 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형 회귀 계수의 값은 독립 변수의 값이 한단위 바뀌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 금액의 변화가 된다.

V. 분석의 결과

1.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를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의 두 형태로 측정하였다. 전출 가구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의 회수로 측정된 사회적 교류와 재정지원의 금액으로 측정된 물질적 교류와의 상관 관계를

피어슨의 r (Pearson's r)을 통해 살펴 보았을 때, 두 형태의 교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r = -.016$). 상관 관계의 계수가 통계적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지만, 그 관계의 방향이 부(負)의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의 결과는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해서 보이는 가족 유대는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지 않고 재정 지원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과 재정 지원을 2분화하여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와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 금액과의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 관계는 그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전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를 방문했는지, 또는 방문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하였는지, 또는 전혀 하지 않았는지로 측정하였을 때, 두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 관계는 .039, 그리고 카이 자승(X^2)은 2.50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두 경우 모두가 통계적 의미를 지니진 못한다. 하지만 이 때의 상관 관계는 정(正)의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 금액의 값으로 측정할 두 변수 사이에서 나타나는 負의 상관 관계와는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구를 방문하는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가구를 자주 방문하는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 대해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지는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쓰여진 실증 분석의 결과는 가족 유대의 두 형태(사회적 교류와 물질적 교류)가 상호 작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입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입장을 모두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회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개념의 조작화와 측정의 방법에 따라서 통계

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개념의 조작화와 측정 방법이 실증 분석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어떤 사상의 발생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요인은 사상이 발생하는 빈도를 결정짓게 되는 요인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 준다.

2.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과 재정 지원의 결정 요인들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과 재정 지원을 2분화하여 측정한 값을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표-3>에 정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종속 변수의 로지트가 독립 변수들의 선형 함수로 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표에 정리된 로지스틱 회귀 계수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른 종속 변수의 값이 지니는 대수교차비(Log-odds)에 있어서의 변화를 나타낸다.

독립변수가 하나 뿐인 경우를 가정하여 예로 든다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g(x) = \beta_0 + \beta_1 x$ 가 되고, 이때의 로지스틱 회귀 계수는 $\beta_1 = g(x+1) - g(x)$ 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독립 변수 x 가 c 단위 만큼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대수교차비의 변화는 $g(x+c) - g(x) = c\beta_1$ 이 되고, 이때의 교차비는 $\psi(c) = \psi(x+c, c) = \exp(c\beta_1)$ 이 되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값들에 대응하는 로지트의 차이를 지수화하여 구할 수 있다. <표-3>에서 나타난 계수의 값을 단변수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 얻어진 계수라고 가정한다면, 남자 전출 가구원에 대한 로지트의 측정값은 $g(\text{male}=1) = .828 - .530$ 으로, 여자 전출 가구원의 경우엔 $g(\text{female}=0) = .828$ 이 된다. 따라서 측정값의 교차비는 $\psi(1) = \exp(-.530) = .589$ 가 되어, 남자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를 방문하게 될 확률은 여자

Table 3. ML Estimated Logistic Regression Coefficients on Log-odds of the Outmigrants Visiting and Paying to Those Not Visiting and Paying (N=1,624)

원가구 방문 전출 가구원 및 재정 지원 전출 가구원의 비방문 및 비지원 전출 가구원에 대한 대수교차비에 놓이는 로지스틱 회귀 계수들의 측정치

Variable	Visit		Support	
	Coeff.	z ¹⁾	Coeff.	z
Household of origin(1=with the elderly)	-.192	-1.280	.216	1.302
Age	-.018	-2.528**	.038	3.637**
Sex(1=male)	-.530	-3.022**	.272	1.438
Relation to head(1=unmarried child)	-.138	-.784	.210	1.092
Education(1=more than middle school)	.316	2.127*	.468	2.835**
Economical activity(1=active)	.974	4.391**	1.046	3.255**
Duration of migration	.068	10.553**	.026	5.478**
Reason of migration (1=economic)	-.340	-1.436	1.186	4.002**
Residence in same province(1=yes)	.682	6.123**	-.074	-.359
Residence in rural area (1=yes)	-1.288	-8.183**	.332	1.738*
Intercept	.828		-5.852	
X ² 2)		1664.9		1859.3
P		.000		.180

1) z=coefficient/standard error

2) Goodness-of-fit chi square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alpha < .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alpha < .05$

전출 가구원이 방문하게 되는 확률의 .589배가 된다.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를 방문하게 되는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전출 가구원의 나이와 성,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전출 기간, 그리고 주거 지역 등이 포함된다. 로지스틱 회귀 계수의 값을 지수화 시킬 경우 $\exp(0)=1$ 이 되기 때문에, 계수의 값이 양수인 경우엔 독립변수의 영향이 정(正)의 방향으로 나타나 원가구를 방문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계수의 값이 음수인 경우엔 그 반대가 된다. 따라서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는 전출 가구원의 나이가 많은 경우, 전출 가구원이 남자인 경우,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전출 가구원의 경우에 원가구를 방문하게 되는 확률은 다른 경우들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을 지닌 전출 가구원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전출 가구원보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출 가구원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전출 가구원보다, 원가구와 같은 시·도에 살고 있는 전출 가구원이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경우보다, 그리고 전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가구를 방문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에서는 전출 가구원의 나이, 교육 수준, 경제 활동 여부, 전출 기간, 전출의 이유, 그리고 농촌 거주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모두 정(正)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출 기간이 길고, 경제적인 이유로 전출을 하였고, 그리고 농촌에 살고 있는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될 확율이 각각의 다른 집단에 속하는 전출 가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원가구에 대한 방문과 재정 지원의 여부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로는 전출 가구원의 나이, 교육수준, 경제 활동 상태, 전출 기간, 그리고 농촌에서의 거주 여부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중에서 전출 가구원의 나이와 농촌에서의 거주 여부는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와 재정 지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출 가구원의 나이가 많을수록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가능성은 높아지나 방문의 확율은 낮아

지고 있으며, 농촌에 살고 있는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를 방문하게 되는 확율은 도시 거주자의 전출 가구원보다 낮지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가능성은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표-4〉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의 금액을 종속 변수로 하는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계 분석의 대상을 원가구를 방문한 전출 가구원과 원가구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한 전출 가구원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방문 회수를 종속 변수로 하였을 때와 재정 지원의 금액을 종속 변수로 하였을 때의 분석 대상이 다르다.

지난 1년 동안에 원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전출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에서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주와의 관계, 교육 수준, 전출 기간, 그리고 원가구와 같은 시·도에 살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 방문 회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출 가구원이

Table 4. OLS Regression Coefficients for Frequency of Visits and Amount of Financial Support
방문 회수와 재정 지원 금액에 대한 선형 회귀 계수들의 측정치

Variable	Visit(N=1,315)		Support(N=201)	
	Coeff.	β	Coeff.	β
Household of Origin(1=with the elderly)	-.917	-.026	250121	.102
Age	.034	.016	10217	.071
Sex(1=male)	-1.339	.040	22737	.009
Relation to head(1=unmarried child)	-2.550	-.076*	-313569	-.131
Education(1=more than middle school)	3.075	.092**	-60888	-.025
Economical activity(1=active)	1.576	.045	319177	.080
Duration of migration	-.102	-.101**	-7021	-.094
Reason of migration (1=economic)	-.904	-.027	55126	.154
Residence in same province(1=yes)	-7.980	.204**	-292852	-.095
Residence in rural area (1=yes)	.308	.008	775801	.293**
Constant	10.230		-222049	
R ²		.07		.20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alpha < .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alpha < .05$

원가주주의 미혼 자녀인 경우 원가구를 방문하는 회수는 줄어 들고 있으며, 전출 기간이 길어 질수록 방문 회수도 줄어 든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은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 방문회수는 낮은 교육 수준의 전출 가구원보다 높게 나타나며,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와 같은 시·도에 살고 있는 경우의 원가구 방문 회수는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전출 가구원보다 많다.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전출 가구원의 농촌 거주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촌에 살고 있는 전출 가구원이 도시에 거주하는 전출 가구원보다 원가구에 대해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 거주 여부 이외의 다른 설명 변수들은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금액의 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하여 미치는 비선형의 영향과 선형의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와 방문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같은 독립 변수가 방문 여부와 방문 회수에 서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출 가구원의 전출 기간은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와 방문 회수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영향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 전출 기간이 길어 질수록 원가구를 방문하게 되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원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방문 회수는 전출 기간이 길어 질수록 그 회수가 줄어 들고 있다. 전출 가구원이 다른 환경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에는 어느 정도의 기

간이 요구되어 진다.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전에 원가구를 방문하게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출 기간이 짧은 전출 가구원이 원가구를 방문할 확율은 전출 기간이 오래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원가구를 방문할 여건이 갖추어진 전출 가구원들의 경우엔 원가구를 떠난 기간이 길어 질수록 원가구를 방문하는 회수가 줄어 들게 된다.

VI.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형태와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원가구의 구성, 전출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전출의 특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족 유대의 형태를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로 나누었고, 물질적 교류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교류는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으로 측정하였다. 설명 변수로는 원가구에 노인 가구원이 있는지의 여부, 전출 가구원의 나이, 성, 원가주주의와의 관계, 교육 수준, 경제 활동 상태, 전출 기간, 전출 이유, 현거주지의 특성 등이 사용되었다.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의 형태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 분석에는 1983년에 실시된 전국 인구이동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를 이용한 통계 분석은 종속 변수의 측정 방법과 분석 대상의 한정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회귀 분석의 기법을 차례로 사용하였는데, 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가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로 나타날 때, 두 형태의 교류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상호 작용적인 관계가 함께 나타난다.

둘째,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출 가구원의 나이, 성, 교육 수준, 경제 활동 상태, 그리고 전출 가구원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특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출 가구원의 나이와 농촌 거주 여부가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와 재정 지원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분석의 대상자를 원가구를 방문한 전출 가구원으로만 한정하고, 원가구에 대한 방문의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을 때,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주와의 관계, 교육 수준, 전출 기간, 그리고 원가구와 같은 시·도에서의 거주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출 가구원의 농촌 거주 여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설명 변수가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와 방문 회수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전출 기간이 길어 질수록 원가구를 방문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원가구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그 회수는 오히려 줄어든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이 연구가 학문적인 의의와 정책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연구가 갖는 학문적인 의의는 전출 가구원의 가족 유대에 관한 처음의 실증 분석이라는 것이고, 개념의 조작화와 측정 방법에 따라서 통계 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의미는 실증 분석의 결과가 노인 단독가구의 부양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에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 단독가구, 특히 농촌에서의 노인 단독가구는 주로 젊은 연령층에 있는 가구원의 전출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이러한 노인 단독가구는 노동력의 부족을 겪게 되어 빈곤 가구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구원 일부의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생겨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전출 가구원의 가족 유대를 파악함으로써 노인 단독가구의 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의 구성원에게서 정부로 옮겨가는 이유를 밝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지니는 몇가지 제한점은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남게 된다. 첫째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제한점은 가족 유대의 조작화와 측정 방법에서 비롯된다. 가족 유대를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로 나누어서 조작화할 때 심리적 교류는 제외되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심리적 교류가 물질적 교류와 사회적 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측정에 따르는 어려움을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원가구에 대한 방문 여부와 방문 회수로 측정하였는데, 사회적 교류의 또 다른 형태인 전화 통화나 편지 왕래 등은 분석 자료로 쓰여진 조사의 결과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물질적 교류는 전출가구가 원가구에 보낸 재정 지원만을 측정하였고, 원가구가 전출 가구원에게 재정 지원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자의 관심이 전출 가구원이 거주지 이동 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 가구원을 떠나 보낸 원가구가 부딪치는 상황의 어려움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대관계가 상호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심리학의 일반적 논리를 전제할 때, 원가구가 전출 가구원에게 보내준 재정 지원을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여전히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게 된다.

이 연구가 지니는 또 다른 제한점은 설명 변수들이 전출 가구원의 원가구에 대한 가족 유대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형의 영향과 선형의 영향을 나누어서 통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연구소(Economics Research Center/NORC)에서 개발된 'HOTZTRAN' 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빗 분석(Tobit Analysis)을 하게 되면, 비선형의 영향과 선형의 영향이 하나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Setzler et al., 1989 : 1021). 하지만 토빗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자는 구할 수 없었다. 만약 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형태의 영향이 하나의 공식으로 나타난다면, 비선형의 영향과 선형의 영향이 각각 공식으로 나뉘어져 분석될 때 생겨나는 분석의 번거로움과 해석의 까다로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인구가동 특별조사 제1차 보고서, 서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권태준, “수도권 인구집중 : 문제점과 대책,” 인구문제논집, 제24권, 1983.
-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 이가옥·권중돈·권선진·안혜영·정윤자,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Aldrich, John H. and Forrest D. Nelson, Linear Probability, Logit, and Probit Model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no. 07-045, Beverly Hills, Sage Pubns, 1984.
- Back, Kurt W., “Small Groups,” in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edited by Morris Rosenberg and Ralph H. Turner, New York, Basic Books, 1981, pp. 320-343.
- Chambers, David L., Making Fathers Pay: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Davanzo, Julie, “Microeconomic Approaches to Studying Migration Decision Making,”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pp. 90-129.
- Finch, Janet, “Age,” in Key Variables in Social Investigation, edited by Robert G. Burges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6, pp. 12-30.
- Fischer, Manford M., “Changing Models of Reasoning in Spatial Choice Analysis,”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58, 1985, pp. 1-5.
- Furstenberg, Frank F. Jr., Chistine Winquist Nord, James L. Peterson, and Nicholas Zill, “The life Course of Children of Divorce : Marital Disruption and Parental Conta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1983, pp. 656
- Grief, Geoffrey L., Single Fathers,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Harbison Sarah 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Strategy in Migration Decision Marking,”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 :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Pergamon Press, 1981, pp. 225-

251.

- Hosmer, David W. Jr., and Stanley Lemeshow, Applied Logistic Regress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9.
- Kmenta, Jan, Elements of Econometrics, 2nd Edition, New York, Macmillan, 1986.
- McGinnis, Robert, "A Stochastic Model of Social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3, 1968, pp. 712-722.
- Seltzer, Judith A., Nora Cate Schaeffer, and Hongwen Charng, "Family Ties after Divorce :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ing and Paying Child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1, 1989, pp. 1013-1032.
- Shaw, R. Paul, Migration Theory and Fact: A Review and Bibliography of Current Literature, Philadelphia, Region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1975.
- Yoon, Jong Joo, "A Study of Individual Migration histories in Korea", in Internal Migr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Secondary Analysis of National Migration Survey, edited by Ehn Hyun Choe, Young Il Chung, and Yong Chan Byun, Seoul, KIPH, NBS, & UN-FPA, 1986, pp. 78-186.

<Summary>

Family Ties of Outmigrants : Determinants of Visiting and Paying Support to Family of Origin

Keywon Cheo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determinants of family ties of outmigrants. Family ties are measured by the frequency of visits an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that recent outmigrants pay to their family of origin. The hypothesized determinants of family ties of outmigrants are : the structure of the household of origin, the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utmigra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gration.

Using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Migration Survey of 1983,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d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employed for statistical analyses of the determinants.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 (1) there is a residual as well a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outmigrant's visits and financial support to his/her household of origin ; (2) age, sex,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outmigrant, and geographic distance of the outmigrant's residence from the household of origin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outmigrant visits and pays financial support to his/her household of origin ; and (3) outmigrant's relation to the head of the household of origin, educational attainment, duration of migration, and residence in the same province as that of the household of origi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frequency of his/her visits to the household of origin, while only the rural-urban residence of outmigrant has the effect on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to the household of origin.

Psychological ties between outmigrant and the household of origin i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It limits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into all aspects of family ties. But, this study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ts theoretical contribution will be in the area of the first empirical analysis of family ties of outmigrants. This study also has implications for policies aimed at providing public assistance to the households of the elderly.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